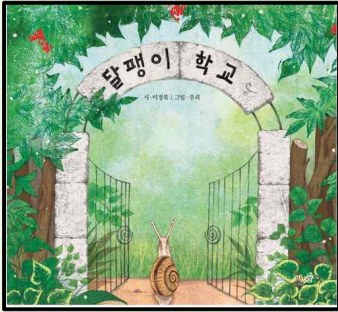


「달팽이 학교」 (이정록 시, 주리 그림 / 바우솔)



주어진 일들을 정신없이 하고 있던 2019년 가을의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 한 달만 집에 콕 박혀 느릿느릿 살고 싶다.’ 그저 집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아이와 시간제한 없이 놀아주기, 읽고 싶은 책 읽기, 보고 싶었던 영화 실컷 보기, 마음은 있지만 이런 저런 일에 치여 늘 연락하지 못했던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안부 전화하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뒹굴뒹굴 하기... 이 모든 일들의 전제조건은 그 어떤 시간제한도 없는 느림이었습니다. ‘나한테 그런 시간이 오긴 올까?’ 제한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던 제게 그런 바람은 아득히 멀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 책장 속의 「달팽이 학교」 (이정록 시, 주리 그림 /바우솔)라는 그림책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림책 속 달팽이들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만사가 느긋한 달팽이들을 보며 흐뭇하게 그 느림을 잠시나마 즐기곤 했습니다.

「달팽이 학교」 속 달팽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달팽이 학교는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이 지각을 가장 많이 하며, 그 중 최고의 지각생은 교장선생님입니다. 운동회는 아침에 준비해서 달밤이 되어서야 시작 합니다. 소풍을 가기위해 김밥을 싸는 데만 사흘이 걸리며, 이웃 보리밭으로 소풍을 다녀오는 데만 일주일이 걸립니다. 교실 코앞이 화장실인데도 달팽이들은 갈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교실에서 오줌을 똥니다. 그래도 똥은 어쩔 수 없는지 전속력 달려가긴 하는데, 화장실 복도에 그만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 그림책은 시인 이정록과 그림 작가 주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정록 시인의 시에는 위트와 느림의 철학이 동시에 담겨 있고, 그림 작가 주리는 이를 소박하고 아기자기하게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책을 감상하는 어린이들은 작가의 위트에 깔깔대며 웃고, 이 책을 감상한 어른들은 그림책 전반에 깔린 느림의 미학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순수하고 맑은

스토리과 그림은 아이들은 매료시키고, 그 뒤에 살포시 숨겨놓은 '느림'이라는 보물은 어른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코로나 19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강제적인 '느림'을 부여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제'라는 말이 조금 슬프게 들리기는 하지만, 우리 삶의 울타리는 점점 좁아졌고, 그 끝에는 나의 작은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집에서 세상이 멈춘 듯한 적막 속에서 일상을 꾸려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나를 감싸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천천히 담담하게 일상을 일구어 나갑니다. 코로나 19는 내가 원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멈춰진 듯한 '느림'은 그 언젠가 바쁘게 살던 나의 간절한 바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 진정 소중한 것을 놓치며 살았던 우리에게 그토록 원했던 '느림'이 주어졌습니다. 필자는 문득 작년 가을의 바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은 아이와 시간제한 없이 놀아주고, 함께 텅굴텅굴하기도 하고, 원 없이 영화와 책을 봅니다. 그 언젠가 필자가 원했던 '느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 19라는 두려움과 긴장감을 '느림의 생활 패턴'이 조금은 완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19가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춰놓은 듯 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림책 속 달팽이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상황에 맞춰서 천천히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우리는 분명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책 속 달팽이들이 사흘 동안 김밥을 싸고, 이웃 보리밭으로 소풍을 다녀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지만, 결국에 그들은 김밥을 싸고 재미있는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도 천천히 가다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답답한 코로나의 미로 끝에 다다를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달팽이들에게 속도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달리다가 그 속도에 스스로 나부라진 경험이 많았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속도는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일요. 그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운동회, 수업시간에 매일 늦던 교장 선생님 달팽이가 교장실 바로 옆 화단으로 이사를 한 것처럼(물론 이사가 한 달이 걸리긴 했지만),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복도에 똥을 싸던 달팽이들이 풀잎 기저귀라는 묘책을 쓴 것처럼 말입니다. 천천히 나의 일상을 보듬어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묘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